

##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

### 황요한

차의과학대학교  
임상상담심리대학원  
석사 졸업

### 윤정혜†


차의과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강박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 그리고 그 하위 영역(단절 및 거절,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타인 중심성, 과잉 경계 및 억제, 손상된 한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19-39세 성인 37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8.0과 PROCESS Macro 4.2(Model 4 및 Model 6)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은 각각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으며, 두 변인의 구조적 순서를 달리한 순차적 매개 모형에서는 초기 부적응 도식이 특질 불안에 선행하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더 큰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해당 모형에 초기 부적응 도식의 다섯 가지 하위 영역을 각각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이 순차적 매개 경로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경험, 초기 부적응 도식, 불안 취약성이 강박 신념의 병리적 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형성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임상 개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주요어 :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 강박 신념, 초기 부적응 도식, 특질 불안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윤정혜 / 차의과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 (11160)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20 / Tel: 031-850-9029 / E-mail : junget@cha.ac.kr

 Copyright ©2025,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아동 학대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중보건 및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아동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간주 된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3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12,351건(32.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5,780건(15.4%), 방임 2,793건(7.4%), 성 학대 655건(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동반된 복합학대 사례가 전체의 47.9%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많은 아동이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보건복지부, 2022).

아동 학대는 단순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정서 및 인지 발달을 저해하고, 심리적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Gilbert et al., 2009; Kendall-Tackett, 2002).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대 경험은 정서 조절의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대인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적응적인 인지·정서적 패턴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Cicchetti & Toth, 2005; McLaughlin et al., 2014). 또한, 신경생리학적 수준에서도 스트레스 반응 체계를 변화시켜 정서적 반응성과 충동 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Teicher & Samson, 2016), 이는 장기적으로 불안, 우울, 강박 증상과 같은 정신 병리적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van Harmelen et al., 2010).

이러한 아동 학대는 발달 초기에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경험되는 스트레스 사건이라는 점에서, 단일 사건을 넘어서는 외상 경험의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아동 학대는 아동·청소년기에 경험되는 외상 경험의 대표적인 형태로 이해되며, 발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스트레스와 위협 경험을 포괄하는 외상 경험의 개념적 틀 안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은 성인기 강박 증상의 발현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은 성인기 강박 증상 발생의 위험과 관련되며(Briggs & Price, 2009; Cromer et al., 2007b; Gershuny & Thayer, 1999), 침습적 사고의 빈도와 강도 증가로 특징지어지는 강박적 사고 경향과도 유의한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혜림 외, 2016). 그러나 외상 경험이 강박 증상 취약성과 관련된다는 보고가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박장애의 핵심 인지적 요인으로 간주 되는 강박 신념과 외상 경험 간의 관계 및 그 인과적 경로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외상 경험이 강박 신념의 형성 및 강화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강박 증상의 발달 경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강박 인지 연구그룹(Obsessive Compulsive Cognitions Working Group [OCCWG], 2001, 2003, 2005)은 강박 신념(obsessive beliefs)을 침투적 사고, 충동, 이미지의 발생 자체에 과도한 중요성과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실제 위협이나 개인의 책임, 도덕적 결함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해석하는 인지적 신념 체계로 정의하였다. OCCWG는 초기 연구에서 강박 신념의 하위 요인으로 ① 사고행위 융합(thought-action fusion), ② 과도한 책임감

(inflated responsibility), ③ 사고 통제(의 중요성(importance/control of thoughts), ④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intolerance of uncertainty), ⑤ 완벽주의(perfectionism), ⑥ 위협에 대한 과대평가(overestimation of threat)를 제시하였으며(OCCWG, 1997, 2001, 2003), 이후 이들 하위 요인 간의 개념적 중첩과 구조적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기의 여섯 가지 하위 요인은 ‘책임감과 위협에 대한 평가(responsibility/threat estimation [RT])’, ‘완벽주의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perfectionism/certainty [PC])’, ‘사고의 중요성과 사고의 통제(importance/control of thought [ICT])’라는 세 요인으로 통합·재구성되었다(OCCWG, 2005).

이러한 신념은 정상적인 침투적 사고를 위협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게 하며, 사고를 통제하거나 중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증폭시켜 강박적 사고의 지속과 강박행동의 발생 및 유지에 핵심적인 인지적 기제로 작용한다(OCCWG, 1997, 2003; Rachman, 1997; Salkovskis, 1985). 즉, 강박장애의 병리적 핵심은 침투적 사고의 ‘발생’ 자체가 아니라, 그 사고에 부여되는 의미와 해석을 조직하는 신념 체계에 있으며, 강박 증상의 인지적 기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매개하는 강박 신념의 형성과 유지 기제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강박 신념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애 초기 외상 경험이 개인의 기본적 신념 체계와 인지적 조절 전략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기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개인은 외부 세계를 위협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공간으로 인식하기 쉬우며, 이는 자

신과 타인,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신념 체계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Cromer et al., 2007a; Mathews et al., 2007). 또한 외상 경험은 통제감의 상실을 경험하게 하고, 이에 대한 심리적 보상으로 사고를 통제하거나 상황을 완벽히 관리하려는 인지적 전략이 강화될 수 있다(Doron et al., 2007; Moulding & Kyrios, 2006). 이러한 과정에서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완벽해야만 안전하다’, ‘불확실성은 견디기 어렵다’와 같은 신념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강박 신념의 핵심 구성 요소들과 개념적으로 긴밀히 연결된다(OCCWG, 2005).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사고 통제성, 완벽주의, 불확실성 회피와 같은 강박 신념의 하위 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 외상이 강박 신념의 발달과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Cromer et al., 2007a; Mathews et al., 2007).

강박 신념은 외상 경험뿐만 아니라 불안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며, 특히 특질 불안(trait anxiety)은 강박 신념의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중요한 정서적 취약성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Abramowitz et al., 2009; Tolin et al., 2006). 특질 불안은 특정 상황에 한정되지 않고 전반적인 삶의 맥락에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불안 성향으로, 실제 위협 여부와 관계없이 상황을 과도하게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Eysenck, 1992; Spielberg, 1966). 이는 일시적이고 상황 의존적인 상태불안(state anxiety)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불확실성과 위협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Holaway et al., 2006).

이러한 불안 성향은 침투적 사고를 위협적

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제하려는 신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특질 불안은 강박 신념의 하위 요소인 위협 과대평가, 사고 통제 신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특질 불안이 강박 신념과 관련된 인지적 취약성을 강화하는 정서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Clark, 2004; OCCWG, 2005). 또한 Thiel 외(2016)와 Foa(2010)는 특질 불안이 강박 신념의 유의한 예측 요인임을 보고하였으며, 높은 특질 불안 수준이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과도한 인식, 사고 통제를 위한 반복적 시도 그리고 확인 행동(compulsive checking)과 같은 강박적 반응과도 밀접하게 관련됨을 제시하였다(Clark & Purdon, 1993; Steketee et al., 1998). 더 나아가 강박장애 환자들은 일반 집단에 비해 특질 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는 점(Foa et al., 2002)을 고려할 때, 특질 불안은 강박 신념의 형성과 유지에 관여하는 핵심적인 정서적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은 강박 신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질 불안을 매개로 한 간접 경로를 통해서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특질 불안의 형성과 강화에 기여하는 주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Chorpita & Barlow, 1998). 반복적인 외상 경험은 신경 생리적 수준에서 자율신경계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HPA axis])의 과활성화를 유발하며, 이러한 변화는 만성적인 불안 상태와 위협 민감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Teicher & Samson, 2016). 실제로 외상 경험이 있는 개인은 위협

요소를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rlow, 2002; Scheeringa et al., 2004). 나아가 생애 초기 외상 경험이 특질 불안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불안 취약성이 침투적 사고에 대한 위협적 해석과 사고 통제 신념을 강화함으로써 강박 신념의 형성과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Abramowitz et al., 2009; Mathews et al., 2007).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경로가 이론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해당 경로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경험적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Gershuny & Thayer, 1999). 이에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강박 신념에 미치는 영향에서 특질 불안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아동·청소년기의 외상 경험은 초기 부적응 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s)을 매개로 하여 강박 신념의 형성을 촉진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초기 부적응 도식은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부정적 경험과 비적응적인 양육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인지적 신념 체계로, 이후 개인의 인지 처리 방식과 행동 양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틀로 기능한다(Young et al., 2003). 이러한 도식은 아동기의 핵심 정서적 욕구가 반복적으로 좌절되는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다양한 정신병리의 발현과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Azadfar et al., 2025; Rafeali et al., 2011). 특히 초기 부적응 도식은 사고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부정적 자기개념과 세계관을 강화함으로써, 침투적 사고를 위협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를 통제하려는 강박 신념의 형성에 인지적 취약성을 제공할 수 있다(Thiel et al., 2016).

Young 외(2003)는 초기 부적응 도식을 총 18개의 개별 도식으로 구성하고, 이들을 공통된 핵심 주제에 따라 다섯 가지 주요 영역(schema domains)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단절 및 거절(Disconnection and Rejection)’ 영역은 안정적인 애착, 정서적 지지, 보호, 공감에 대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중심으로 하며, 정서적 결핍, 버림받음, 불신 및 학대, 사회적 고립과 같은 도식들을 포함한다. 둘째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impaired autonomy and performance)’ 영역은 독립적인 기능 수행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신념의 손상을 특징으로 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 취약성에 대한 과대평가와 관련된 도식들을 포함한다. 셋째 ‘타인 중심성(other-directedness)’ 영역은 타인의 욕구와 기대를 자신의 욕구보다 우선시함으로써 관계 유지를 도모하려는 경향을 반영하며, 자아 가치가 외부 평가에 과도하게 의존되는 특성을 보인다. 넷째 ‘과잉 경계 및 억제(overvigilance and inhibition)’ 영역은 감정과 충동의 자발적 표현을 억제하고, 엄격한 자기통제, 완벽주의적 기준, 처벌적 태도를 강조하는 인지적·정서적 경향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손상된 한계(impaired limits)’ 영역은 자기통제의 부족, 좌절 인내력의 결핍, 과도한 권리의식을 특징으로 하며, 타인과의 적절한 경계 설정의 어려움과 관련된다.

이러한 하위 영역들은 외상 경험 이후 형성되는 인지적 반응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며, 강박 신념의 발달과 유지에 기여하는 심리적 매개로 작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단절 및 거절’과 ‘과잉 경계 및 억제’ 영역이 위협 과대평가, 완벽주의, 사고 통제 신념과 같은 강박 신념의 핵심 구성 요

소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Thiel et al., 2016; Young et al., 2003), 이를 통해 초기 부적응 도식이 강박 신념의 형성과 유지에 관여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여,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간과 되어 왔던 다른 하위 영역들 또한 강박 신념의 다양한 구성 요소(예: 불확실성 회피, 도덕적 불안정성, 통제 욕구 등)와 개념적 수준에서 의미 있게 연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Dostal & Pilkington, 2023).

실제로 Dostal와 Pilkington(2023)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강박장애는 다양한 초기 부적응 도식과 광범위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그중에서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타인 중심성’, ‘손상된 한계’ 영역의 도식들과도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강박 신념이 일부 특정 도식 영역에 의해서만 설명되기보다는, 보다 복합적이고 폭넓은 도식적 취약성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기존 연구들은 초기 부적응 도식을 단일 지표로 처리하거나 일부 하위 영역만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 하위 영역 간의 차별성과 구조적 분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Atalay et al., 2008). 특히, 하위 영역들 간의 높은 상관으로 인해 모든 도식을 하나의 분석 모형에 일괄 포함할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각 하위 영역의 고유한 효과를 명확히 해석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다(Bach et al., 201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초기 부적응 도식을 하나의 총합적 구조로 접근하기보다는 각 하위 영역이 지닌 고유한 심리적 기능과 작동 경로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접근이 이론적 타당성과 임상적 활

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보다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Azadfar et al., 2025; Rafaeli et al., 2011; Young et al., 2003).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기 부적응 도식의 다섯 가지 하위 영역(단절 및 거절,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타인 중심성, 과잉 경계 및 억제, 손상된 한계)을 각각 독립된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초기 부적응 도식이 단일한 차원의 인지 구조가 아니라, 서로 구별되는 인지적 핵심 내용과 발달적 기원을 지닌 다차원적 인지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영역이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 간의 관계에서 고유하고 차별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다(Young et al., 2003).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 간의 구조적 선후관계를 주요 논의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두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으며(Calvete, 2014; Muris, 2006), 이는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이 심리적 취약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로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두 변인 간의 구조적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일관된 이론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특질 불안과 같은 정서적 성향이 반복적인 부정적 경험과 상호작용하면서 부적응적인 신념 체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는 반면(Calvete et al., 2013; Muris, 2006), 다른 연구들은 초기 부적응 도식이 개인의 정서적 반응, 특히 불안의 유발과 지속에 기여한다고 설명한다(Schmidt et al., 1995; Stopa & Waters, 2005; Young et al., 2003). 이처

럼 두 변인은 상호작용적이거나 순환적인 경로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일방적인 인과 관계로 단정하기에는 이론적·경험적 제약이 존재하며 해석의 일치가 어려운 상태이다(Riso et al., 2007). 이러한 상황에서 두 변인의 관계를 특정한 인과 방향으로 고정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며, 해석의 객관성과 이론적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론적 가능성을 고려한 비교 모형 분석을 통해 두 변인의 작용 구조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먼저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이 각각 독립적으로 매개 효과를 갖는지 확인한 뒤, 두 변인의 선행 순서를 달리한 순차적 매개 모형을 설정하여 비교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 중 어느 변인이 인과적으로 선행할 때 강박 신념의 형성 과정을 더 잘 설명하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가 이론적·경험적으로 더 정합한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어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 순차 매개 구조에 대해서는 초기 부적응 도식의 다섯 가지 하위 영역(단절 및 거절,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타인 중심성, 과잉 경계 및 억제, 손상된 한계)을 각각 독립된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여,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 간의 관계에서 특질 불안과 각 도식 영역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그 구조적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기 부적응 도식의 하위 영역들이 특질 불안과 상호작용하여 강박 신념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는 차별적 기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상 기반 강박 신념 형성 과정에서 작동하는

인지적 취약성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는데 기여하며, 향후 임상 개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 특질 불안, 초기 부적응 도식, 강박 신념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 각각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이 이루는 순차적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3-1. 특질 불안이 초기 부적응 도식에 선행하는 순차적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경쟁 모형 1)

3-2. 초기 부적응 도식이 특질 불안에 선행하는 순차적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경쟁 모형 2)

연구문제 4. 비교 검증을 통해 선정된 순차적 매개 모형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다섯 가지 하위 영역을 각각 반영했을 때, 순차적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이 이루는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온라인 리서치 전문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39세의 성인 410명을 단순 무작위 표집(simple random sampling)하여 모집하였으며, 응답의 일관성이 낮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최종 378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9.82세( $SD = 5.37$ )였으며, 성별은 남성 47.1%, 여성 52.9%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다.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 전체의 58.2%를 차지하였으며, 직업군 중에서는 회사원이 4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거주 지역의 경우,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 거주자가 전체의 62.9%를 차지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IRB No. 1044308-202208-HR-041-02)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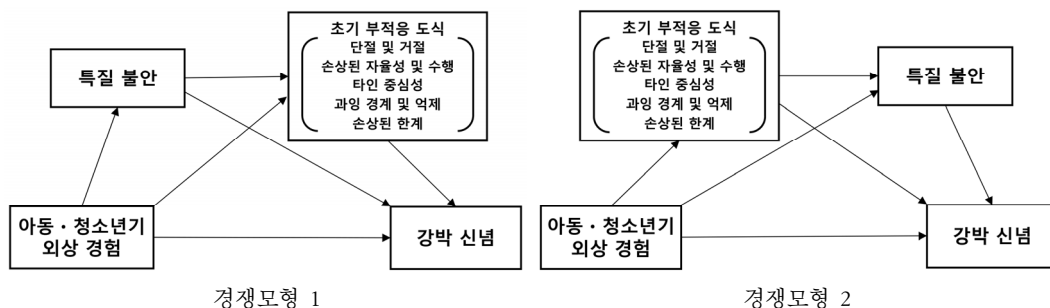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378)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1) 남성	178	47.1
	2) 여성	200	52.9
연령대	1) 만 19세-29세	185	48.9
	2) 만 30세-39세	193	51.1
지역	1) 서울	104	27.5
	2) 경기, 인천	134	35.4
	3) 강원도	7	1.9
	4) 충북	8	2.1
	5) 충남(대전)	23	6.1
	6) 전북	7	1.9
	7) 전남(광주)	14	3.7
	8) 경북(대구)	22	5.8
	9) 경남(부산, 울산)	55	14.6
	10) 제주도	4	1.1
학력	1) 고등학교 졸업	40	10.6
	2) 2-3년제 대학 재학	9	2.4
	3) 2-3년제 대학 졸업	42	11.1
	4) 4년제 대학 재학	67	17.7
	5) 4년제 대학 졸업	192	50.8
	6) 대학원 졸업 이상	28	7.4
직업	1) 학생	56	14.8
	2) 무직	49	13
	3) 자영업	18	4.8
	4) 회사원	171	45.2
	5) 전문직	30	7.9
	6) 공무원	21	5.6
	7) 프리랜서	19	5
	8) 기타	14	3.7
총계		378	100.0

## 측정도구

### 강박 신념 질문지-44(Obsessive Beliefs

#### Questionnaire 44 [OBQ-44])

본 연구에서는 강박 신념의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강박 신념 질문지(OBQ-44)를 사용하였다. OBQ-44는 초기 87문항으로 구성된 OBQ-87(OCCWG, 1997, 2001)을 기반으로, 강박장애의 핵심 신념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을 반영하여 44문항으로 축소한 도구이다(OCCWG, 2005). 본 연구에서는 민병배와 원호택(2000)이 번안한 OBQ-87에서 문항을 선별하여 구성된 한국어판 OBQ-44를 사용하였다. OBQ-44는 1점(전혀 동의하지 않음)에서 7점(매우 동의함)까지 응답하는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도한 책임감과 위협에 대한 과대평가(16문항), 완벽주의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16문항), 사고의 중요성과 통제(12문항)로 이루어진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OBQ-44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전체 척도에서 .96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과도한 책임감과 위협에 대한 과대평가 .92, 완벽주의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91, 사고의 중요성과 통제 .92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 외상 경험 척도(Trauma Antecedents

#### Questionnaire [TAQ])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은 van der Kolk (1997)가 개발하고 고나래(2008)가 한국어판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외상 경험 척도(TAQ)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TAQ는 총 42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척도로, 각 문항은 특정 외상 사건이 아동기(12세 이전)에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를 평가한다. 응답은 외상 사건의 발생 빈도를 기준으로 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0점(전혀 없었다), 1점(한두 번 혹은 거의 없었다), 2점(가끔 있었다), 3점(자주 있었다)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사건을 더 빈번하게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TAQ의 10개 하위 요인 중 신체적 학대(5문항), 성적 학대(4문항), 정서적 학대 및 방임(6문항)으로 구성된 세 가지 하위 요인만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총 15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고나래(2008)의 연구에서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외상 경험을 반영하는 복합 외상(complex trauma)의 핵심 영역으로 제시되었으며,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다. 특히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요인분석 과정에서 높은 중복성과 개념적 유사성을 보였으며, 고나래(2008) 역시 두 요인을 통합하여 해석하였다. 본 연구 또한 이를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TAQ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전체 척도에서 .88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의 신뢰도는 신체적 학대 .82, 성적 학대 .87, 정서적 학대 및 방임 .81로 모두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 Spielberger 상태-특질 불안 척도 특질형

####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Trait Version [STAI-T])

본 연구에서는 특질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1970)가 개발한 상태-특질 불안 척도(STAI-T)를 사용하였다. STAI는 상태불안과 특질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각각 2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국내에서는 김정택(1978)이 번안한 측정 도구이다. 본 연구에

서는 특질 불안만을 측정하기 위해 STAI의 특질 불안 문항 20개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특질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특질 불안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8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 초기 부적응 도식 질문지-3판 단축형(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Version 3 [YSQ-S3])

초기 부적응 도식은 Young(2005)이 개발하고 Lee 외(2015)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초기 부적응 도식 질문지 3판 단축형(YSQ-S3)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YSQ-S3는 총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척도는 초기 부적응 도식의 다섯 가지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총 18개의 도식을 평가한다. 초기 부적응 도식의 다섯 가지 하위 영역은 '단절 및 거절'(25문항),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20문항), '타인 중심성'(15문항), '과잉 경계 및 억제'(20문항), '손상된 한계'(10문항)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YSQ-S3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전체 척도에서 .9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 신뢰도 또한 단절 및 거절 .97,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95, 타인 중심성 .90, 과잉 경계 및 억제 .94, 손상된 한계 .86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8.0과 SPSS

PROCESS Macro 4.2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셋째,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강박 신념에 미치는 영향에서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이 각각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한 병렬 매개 분석(parallel medi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강박 신념에 미치는 영향에서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이 순차적으로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6을 활용한 순차적 매개 분석(sequential medi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때 특질 불안이 초기 부적응 도식에 선행하는 경로(외상 경험 → 특질 불안 → 초기 부적응 도식 → 강박 신념)와 초기 부적응 도식이 특질 불안에 선행하는 경로(외상 경험 → 초기 부적응 도식 → 특질 불안 → 강박 신념)를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다섯째, 두 순차적 매개 모형 가운데 강박 신념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모형을 선정 후, 해당 모형을 기반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다섯 가지 하위 영역을 각각 반영하여 PROCESS Macro의 Model 6을 활용한 순차적 매개 분석(sequential mediation analysis)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모든 매개 모형 분석에서는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5,000회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으며, 해당 신뢰구간에 0이 포함

되지 않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결 과

###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한 결과,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 1.29( $SD = 0.39$ ), 특질 불안 2.32( $SD = 0.54$ ), 초기 부적응 도식 2.24( $SD = 0.84$ ), 강박 신념 3.71( $SD = 1.01$ )로 나타났다. 초기 부적응 도식의 하위 영역들 역시 각각

평균 2.08-2.38점 범위에서 측정되었다. 정규분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의 왜도값(.01-1.69)과 첨도값(-.26-3.19)은 정규성 기준(Kline, 2013)을 충족하였다.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 결과,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은 특질 불안( $r = .34, p < .01$ ), 초기 부적응 도식( $r = .59, p < .01$ ), 강박 신념( $r = .40, p < .01$ )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특질 불안은 초기 부적응 도식( $r = .67, p < .01$ ) 및 강박 신념( $r = .55, p < .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더불어 초기 부적응 도식의 모든 하위 영역 역시 강박 신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

표 2.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 $N = 378$ )

변 인	1	2	3	4	5	6	7	8	9
1.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	1								
2. 특질 불안	.34**	1							
3. 초기 부적응 도식	.59**	.67**	1						
4. 단절 및 거절	.59**	.68**	.96**	1					
5. 손상된 자율 및 수행	.57**	.67**	.94**	.91**	1				
6. 타인 중심성	.50**	.56**	.90**	.81**	.79**	1			
7. 과잉 경계 및 억제	.54**	.61**	.95**	.87**	.84**	.88**	1		
8. 손상된 한계	.56**	.53**	.88**	.81**	.78**	.82**	.83**	1	
9. 강박 신념	.40**	.55**	.67**	.62**	.61**	.62**	.69**	.58**	1
평균	1.29	2.32	2.24	2.08	2.12	2.40	2.37	2.38	3.71
표준편차	0.39	0.54	0.84	0.96	0.92	0.84	0.88	0.82	1.01
왜도	1.69	0.32	0.97	1.06	1.17	0.86	0.77	0.63	0.10
첨도	3.19	-0.26	0.53	0.50	0.98	0.71	0.27	0.28	0.17

\*\* $p < .01$ .

효과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강박 신념에 미치는 영향에서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이 각각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외상 경험은 매개변수인 특질 불안( $\beta = .24, p < .001$ )과 초기 부적응 도식( $\beta = .60, p < .001$ )에 각각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종속변수인 강박 신념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beta = .33, p < .001$ ). 그러나 외상 경험을 통제된 상태에서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외상 경험이 강박 신념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beta = -.08, p > .05$ ), 특질 불안( $\beta = .30, p < .001$ )과 초기 부적응 도식( $\beta = .55, p < .001$ )은 모두 강박 신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가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에 의해 완전 매개되며, 두 변인이 해당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초기 부적응 도식과 특질 불안 각각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두 매개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수치는 표 4에 제시하

표 3.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

독립	종속	B(SE)	$\beta$	t	R <sup>2</sup>	F
	특질 불안	.17(.03)	.24	5.04***	.06	25.40***
외상 경험	초기 부적응 도식	1.03(.07)	.60	15.29***	.36	233.75***
	강박 신념	.65(.09)	.33	7.01***	.11	49.16***
외상 경험		-.15(.09)	-.08	-1.75		
특질 불안	강박 신념	.86(.12)	.30	7.29***	.50	136.68***
초기 부적응 도식		.64(.06)	.55	11.13***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4.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기반 간접효과 비교

경로	B	SE	95% CI	
			LLCI	ULCI
외상 경험 → 특질 불안 → 강박 신념	.14	.10	.62	1.01
외상 경험 → 초기 부적응 도식 → 강박 신념	.66	.09	.50	.85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 limit; UL = upper limit.

bootstrap samples = 5000.

였다.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의 순차적 매개효과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이 각각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두 변인 간의 구조적 선후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순차적 매개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특질 불안이 선행하는 모형 1과 초기 부적응 도식이 선행하는 모형 2를 구성하고,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특질 불안이 초기 부적응 도식에 선행한다고 가정한 순차적 매개 모형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특질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beta = .24, p < .001$ ), 2단계에서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 $\beta = .51, p < .001$ )과 특질 불안( $\beta = .38, p < .001$ )이 초기 부적응 도식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 특질 불안, 초기 부적응 도식을 동시에 투입하여 강박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특질 불안( $\beta = .30, p < .001$ )과 초기 부적응 도식( $\beta = .55, p < .001$ )은 강박 신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외상 경험의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33, p < .001 \rightarrow \beta = -.08, p > .05$ ). 이러한 결과는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 간의 관계에서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이 순차적으로 완전 매개함을 시사

표 5.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의 순차적 매개효과 비교

	독립	종속	B(SE)	$\beta$	t	R <sup>2</sup>	F
모형1	외상 경험	특질 불안	.17(.03)	.24	5.04***	.06	25.40***
	외상 경험	초기 부적응 도식	.87(.06)	.51	14.17***	.50	205.12***
	특질 불안		.95(.09)	.38	10.61***		
	외상 경험						
	특질 불안	강박 신념	.86(.12)	.30	7.29***	.50	136.68***
	초기 부적응 도식		.64(.06)	.55	11.13***		
모형2	외상 경험	초기 부적응 도식	1.03(.07)	.60	15.29***	.36	233.75***
	외상 경험	특질 불안	-.07(.04)	-.10	-1.87	.26	72.46***
	초기 부적응 도식		.23(.02)	.57	10.61***		
	외상 경험						
	초기 부적응 도식	강박 신념	.64(.06)	.55	11.13***	.50	136.68***
	특질 불안		.86(.12)	.30	7.29***		

\* $p < .05$ , \*\* $p < .01$ , \*\*\* $p < .001$ .

한다.

다음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이 특질 불안에 선행하는 순차적 매개 모형의 분석 결과, 1단계에서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초기 부적응 도식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eta = .60, p < .001$ ), 2단계에서는 외상 경험( $\beta = -.10, p > .05$ )과 초기 부적응 도식( $\beta = .57, p < .001$ )이 특질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초기 부적응 도식은 유의한 정적 예측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외상 경험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외상 경험, 초기 부적응 도식, 특질 불안을 동시에 투입하여 강박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초기 부적응 도식( $\beta = .55, p < .001$ )과 특질 불안( $\beta = .30, p < .001$ )은 모두 강박 신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외상 경험의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33, p < .001 \rightarrow \beta = -.08, p > .05$ ). 즉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초기 부적응 도식을 거쳐 특질 불안을 통해 강박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완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수행한 결과, 특질 불안이 초기 부적응 도식에 선행하는 순차적 매개효과와 초기 부적응 도식이 특질 불안에 선행하는 순차적 매개효과 모두에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두 순차적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수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두 경쟁모형 모두 강박 신념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논의가 엇갈려 온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 간의 구조적 선후관계를 비교하여,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경로를 검토하였다. 매개변인 간 경로계수를 비교한 결과, 모형 1에서 특질 불안이 초기 부적응 도식에 미치는 영향력( $\beta = .38, p < .001$ )보다, 모형 2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이 특질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 $\beta = .57, p < .001$ )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bootstrapping 간접효과 크기 역시

표 6.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의 순차적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분석결과 비교

	경로	B	SE	95% CI	
				LLCI	ULCI
모형1	외상 경험 → 특질 불안 → 강박 신념	.14	.04	.07	.23
	외상 경험 → 초기 부적응 도식 → 강박 신념	.56	.08	.42	.72
	외상 경험 → 특질 불안 → 초기 부적응 도식 → 강박 신념	.10	.03	.05	.16
모형2	외상 경험 → 초기 부적응 도식 → 강박 신념	.66	.09	.50	.85
	외상 경험 → 특질 불안 → 강박 신념	-.06	.04	-.13	.00
	외상 경험 → 초기 부적응 도식 → 특질 불안 → 강박 신념	.20	.04	.13	.29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 limit; UL = upper limit.

bootstrap samples = 5000.

황요한 · 윤정혜 /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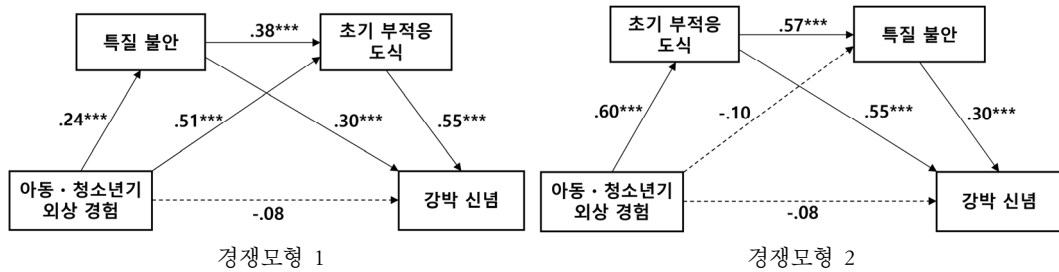


그림 2.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의 순서를 달리 한 두 경쟁 모형의 비교

모형 1( $B = .10$ , 95% CI [.05, .16])보다 모형 2( $B = .20$ , 95% CI [.13, .29])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산출되었으며, 첫 번째 매개변인(모형 1의 특질 불안, 모형 2의 초기 부적응 도식)에 대한 설명력 또한 모형 1( $R^2 = .06$ )보다 모형 2( $R^2 = .36$ )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통계적 근거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형 2가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타당하게 설명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후 초기 부적응 도식의 다섯 가지 하위 영역 분석을 해당 모형에 기반하여 수행하였다.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다섯 가지 하위 영역(단절 및 거절,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타인 중심성, 과잉 경계 및 억제, 손상된 한계)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에 대한 두 모형의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초기 부적응 도식의 다섯 가지 하위 영역(단절 및 거절,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타인 중심성, 과잉 경계 및 억제, 손상된 한계)을 각각 특질 불안에 선

행하는 매개 요인으로 설정하여 순차적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1.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 영역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1단계에서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단절 및 거절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eta = .60$ ,  $p < .001$ ), 2단계에서는 외상 경험( $\beta = -.05$ ,  $p > .05$ )과 단절 및 거절 영역( $\beta = .48$ ,  $p < .001$ )이 특질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단절 및 거절 영역은 특질 불안에 유의한 정적 예측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외상 경험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외상 경험, 단절 및 거절 영역, 특질 불안을 동시에 투입하여 강박 신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절 및 거절 영역( $\beta = .47$ ,  $p < .001$ )과 특질 불안( $\beta = .35$ ,  $p < .001$ )은 모두 강박 신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외상 경험의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33$ ,  $p < .001 \rightarrow \beta = -.04$ ,  $p > .05$ ). 즉,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단절 및 거절 영역을 거쳐 특질 불안을 통해 강박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완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표 7.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 영역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 효과

독립	종속	B(SE)	β	t	R <sup>2</sup>	F
외상 경험	단절 및 거절	1.17(.08)	.60	15.15***	.36	229.52***
외상 경험	특질 불안	-.03(.04)	-.05	-.89	.21	53.79***
단절 및 거절	강박 신념	.17(.02)	.48	8.80***		
외상 경험	강박 신념	-.07(.09)	-.04	-.82		
단절 및 거절	특질 불안	.48(.05)	.47	9.41***	.47	118.58***
특질 불안	강박 신념	1.03(.12)	.35	8.71***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8.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 영역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 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분석 결과

경로	B	SE	95% CI	
			LLCI	ULCI
외상 경험 → 단절 및 거절 → 강박 신념	.56	.08	.42	.71
외상 경험 → 특질 불안 → 강박 신념	-.03	.04	-.12	.04
외상 경험 → 단절 및 거절 → 특질 불안 → 강박 신념	.21	.04	.13	.29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 limit; UL = upper limit.

bootstrap samples = 5000.

해당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수행한 결과,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차적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시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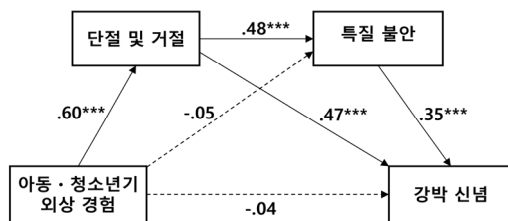


그림 3.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 영역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

며, 구체적인 수치는 표 8에 제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영역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1단계에서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eta = .59, p < .001$ ), 2단계에서는 외상 경험( $\beta = -.07, p > .05$ )과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영역 ( $\beta = .53, p < .001$ )이 특질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영역은 특질 불안에 유의한 정적 예측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외상

황요한 · 윤정혜 /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

표 9.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영역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

독립	종속	B(SE)	$\beta$	t	R <sup>2</sup>	F
외상 경험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1.10(.08)	.59	14.65***	.34	214.63***
외상 경험	특질 불안	-.05(.04)	-.07	-1.24	.24	64.04***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특질 불안	.19(.02)	.53	9.83***		
외상 경험	강박 신념	-.01(.09)	-.00	-.07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강박 신념	.44(.05)	.42	8.20***	.44	107.62***
특질 불안	강박 신념	1.03(.12)	.36	8.37***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10.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영역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분석결과

경로	B	SE	95% CI	
			LLCI	ULCI
외상 경험 →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 강박 신념	.49	.07	.35	.65
외상 경험 → 특질 불안 → 강박 신념	-.05	.04	-.13	.03
외상 경험 →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 특질 불안 → 강박 신념	.22	.04	.14	.30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 limit; UL = upper limit.

bootstrap samples = 5000

경험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외상 경험,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영역, 특질 불안을 동시에 투입하여 강박 신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영역( $\beta = .42, p < .001$ )과 특질 불안( $\beta = .36, p < .001$ )은 모두 강박 신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외상 경험의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33, p < .001 \rightarrow \beta = -.00, p > .05$ ). 즉,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영역을 거쳐 특질 불안을 통해 강박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완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해당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수행한 결과,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차적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시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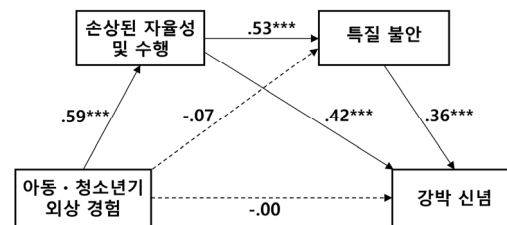


그림 4.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영역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

며, 구체적인 수치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3.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타인 중심성 영역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1단계에서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타인 중심성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eta = .52, p < .001$ ), 2단계에서는 외상 경험( $\beta = -.03, p > .05$ )과 타인 중심성 영역( $\beta = .53, p < .001$ )이 특질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타인 중심성 영역은 특질 불안에 유의한 정적 예측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외상 경험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외상 경험, 타인 중심성 영

역, 특질 불안을 동시에 투입하여 강박 신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타인 중심성 영역( $\beta = .43, p < .001$ )과 특질 불안( $\beta = .33, p < .001$ )은 모두 강박 신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외상 경험의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33, p < .001 \rightarrow \beta = .02, p > .05$ ). 즉,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타인 중심성 영역을 거쳐 특질 불안을 통해 강박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완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해당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수행한 결과,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차적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시사하

표 11.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타인 중심성 영역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

독립	종속	B(SE)	$\beta$	t	R <sup>2</sup>	F
외상 경험	타인 중심성	.87(.07)	.52	12.18***	.27	148.38***
외상 경험	특질 불안	-.02(.03)	-.03	-.65	.27	73.62***
타인 중심성	강박 신념	.22(.02)	.53	10.71***		
외상 경험	강박 신념	.05(.09)	.02	.56		
타인 중심성	특질 불안	.51(.06)	.43	9.00***	.46	114.64***
특질 불안		.95(.12)	.33	7.70***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12.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타인 중심성 영역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분석 결과

경로	B	SE	95% CI	
			LLCI	ULCI
외상 경험 → 타인 중심성 → 강박 신념	.45	.07	.31	.59
외상 경험 → 특질 불안 → 강박 신념	-.02	.04	-.10	.05
외상 경험 → 타인 중심성 → 특질 불안 → 강박 신념	.18	.04	.11	.26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 limit; UL = upper limit.

bootstrap samples = 5000

황요한 · 윤정혜 /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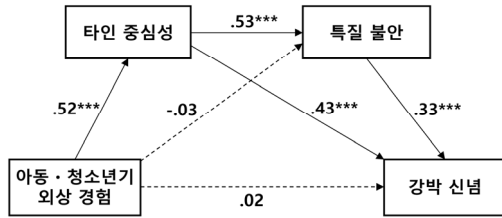


그림 5.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타인 중심성 영역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

며, 구체적인 수치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4.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과잉 경계 및 억제 영역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1단계에서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과잉 경계 및 억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eta = .53, p < .001$ ), 2단계에서는 외상 경험( $\beta = -.01, p > .05$ )과 과잉 경계 및 억제 영역( $\beta = .48, p < .001$ )이 특질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과잉 경계 및 억제 영역은 특질 불안에 유의한 정적 예측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외상 경험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외상 경험, 과잉 경계 및 억제 영역, 특질 불안을 동시에 투입하여 강박 신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과잉 경계 및 억제 영역( $\beta =$

표 13.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과잉 경계 및 억제 영역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

독립	종속	B(SE)	$\beta$	t	R <sup>2</sup>	F
외상 경험	과잉 경계 및 억제	.94(.07)	.53	12.55***	.28	157.54***
외상 경험	특질 불안	-.01(.04)	-.01	-.19	.23	58.36***
과잉 경계 및 억제		.19(.02)	.48	9.28***		
외상 경험		-.09(.08)	-.05	-1.13		
과잉 경계 및 억제	강박 신념	.64(.05)	.57	13.07***	.54	160.72***
특질 불안		.87(.11)	.30	7.89***		

\* $p < .05$ , \*\* $p < .01$ , \*\*\* $p < .001$

표 14.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과잉 경계 및 억제 영역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분석 결과

경로	B	SE	95% CI	
			LLCI	ULCI
외상 경험 → 과잉 경계 및 억제 → 강박 신념	.60	.08	.46	.75
외상 경험 → 특질 불안 → 강박 신념	-.01	.03	-.07	.06
외상 경험 → 과잉 경계 및 억제 → 특질 불안 → 강박 신념	.15	.03	.09	.22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 limit; UL = upper limit.

bootstrap samples = 5000.

.57,  $p < .001$ )과 특질 불안( $\beta = .30, p < .001$ )은 모두 강박 신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외상 경험의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33, p < .001 \rightarrow \beta = -.05, p > .05$ ). 즉,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과잉 경계 및 억제 영역을 거쳐 특질 불안을 통해 강박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완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수행한 결과,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차적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시사하며, 구체적인 수치는 표 1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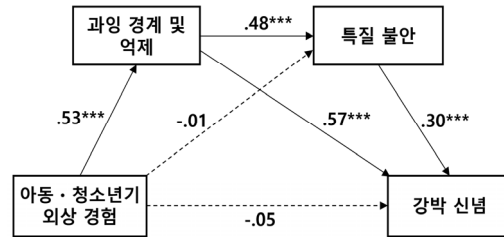


그림 6.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과잉 경계 및 억제 영역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

5.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손상된 한계 영역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15에 제

표 15.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손상된 한계 영역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

독립	종속	B(SE)	$\beta$	t	R <sup>2</sup>	F
외상 경험	손상된 한계	.99(.07)	.59	14.83***	.35	219.80***
외상 경험	특질 불안	-.03(.04)	-.05	-.92	.22	56.34***
손상된 한계	강박 신념	.47(.06)	.40	7.81***	.44	104.40***
특질 불안	강박 신념	1.08(.12)	.37	8.86***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16.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손상된 한계 영역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분석 결과

경로	B	SE	95% CI	
			LLCI	ULCI
외상 경험 → 손상된 한계 → 강박 신념	.48	.08	.32	.64
외상 경험 → 특질 불안 → 강박 신념	-.04	.04	-.06	.02
외상 경험 → 손상된 한계 → 특질 불안 → 강박 신념	.22	.04	.14	.30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 limit; UL = upper limit.

bootstrap samples = 5000.

시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1단계에서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손상된 한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eta = .59, p < .001$ ), 2단계에서는 외상 경험( $\beta = -.05, p > .05$ )과 손상된 한계 영역( $\beta = .49, p < .001$ )이 특질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손상된 한계 영역은 특질 불안에 유의한 정적 예측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외상 경험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외상 경험, 손상된 한계 영역, 특질 불안을 동시에 투입하여 강박 신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손상된 한계 영역( $\beta = .40, p < .001$ )과 특질 불안( $\beta = .37, p < .001$ )은 모두 강박 신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외상 경험의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33, p < .001 \rightarrow \beta = .00, p > .05$ ). 즉,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손상된 한계 영역을 거쳐 특질 불안을 통해 강박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완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해당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수행한 결과,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차적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시사하며, 구체적인 수치는 표 16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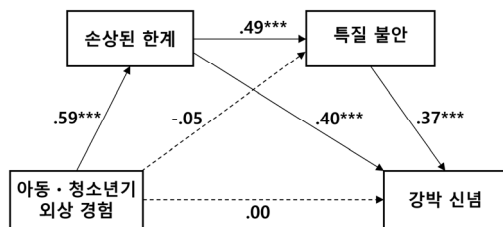


그림 7.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손상된 한계 영역과 특질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

## 논 의

본 연구는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강박 신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이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고, 두 변인의 선행 순서를 달리 설정한 순차적 매개 모형을 비교함으로써 강박 신념 형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타당한 설명 경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순차적 매개 모형을 도출한 뒤, 해당 모형을 기준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다섯 가지 하위 영역(단절 및 거절,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타인 중심성, 과잉 경계 및 억제, 손상된 한계)을 각각 투입하여, 이들 도식 영역이 특질 불안과 함께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 간의 관계에서 수행하는 개별적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이론적 · 임상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외상 경험, 초기 부적응 도식, 특질 불안, 강박 신념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각 변인이 강박 신념과 관련된 공통의 심리적 기제를 공유하며,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외상 경험은 정서적 반응 특성인 특질 불안뿐만 아니라, 인지적 취약성 구조인 초기 부적응 도식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는 외상 경험이 정서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 전반에 걸쳐 개인의 심리 구조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의 개별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두 변인을 통한 간접효과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외상 경험의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 간의 관계가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이라는 정서적·인지적 취약성을 경유하는 간접 경로를 통해 완전하게 매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은 특질 불안을 심화시키거나 초기 부적응 도식을 고착시킴으로써 강박 신념의 형성과 강화로 이어지는 심리적 경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경험이 정서적 취약성과 부적응적 인지 구조가 결합된 복합 경로를 통해 강박 신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함의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셋째,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의 관계에서 특질 불안과 초기 부적응 도식이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두 변인의 구조적 선행 순서를 달리 설정한 순차적 매개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특질 불안이 선행하는 구조(외상 → 특질 불안 → 초기 부적응 도식 → 강박 신념)와 초기 부적응 도식이 선행하는 구조(외상 → 초기 부적응 도식 → 특질 불안 → 강박 신념) 모두에서 유의한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외상 경험이 정서적 취약성인 특질 불안을 촉발하여 초기 부적응 도식을 강화함으로써 강박 신념으로 이어지는 경로와, 외상 경험이 왜곡된 인지 구조를 형성하여 특질 불안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강박 신념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모두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간접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한 결과, 초기 부적응 도식이 특질 불안에 선행하는 모형( $B = .20, 95\% \text{ CI } [.13, .29]$ )이 특질 불안이 초기 부적응 도식에 선행하는 모형( $B = .10, 95\% \text{ CI } [.05, .17]$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먼저 왜곡된 인지 구조를 선행적으로 형성하고, 이러한 인지적 변화가 특질 불안을 유발하거나 증폭시킨 뒤, 궁극적으로 강박 신념의 강화를 초래하는 순차적 경로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작동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도식 선행 구조를 지지하는 선행연구(Stopa & Waters, 2005; Young et al., 2003)와 맥을 같이 하며, 생애 초기의 외상 경험이 강박 신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이 단순한 정서 반응의 부산물이 아니라, 외상 이후 정서 반응을 구조화하고 조절하는 상위 인지 구조(higher-order cognitive structure)로 기능함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강박 신념의 병리적 형성 과정은 생애 초기 외상 경험에서 시작되어 부적응적 도식의 형성과 고착을 거쳐 특질 불안이 유발되고, 궁극적으로 강박 신념으로 이어지는 하향식 인지 처리 구조가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도식 선행’ 순차모형에서 더 큰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는 점은, 해당 모형이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 간의 인과적 경로를 이론적으로 더 정합하게 설명함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이후 강박 신념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이해함에 있어, 정서 반응 자체보다 그 배경을 이루는 인지적 구조가 보다 핵심적인 개입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의 핵심 설명 모형으로 채택된 ‘도식 선행’ 순차적 매개 모형을 기반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다섯 가지 하위 영역이 각각 어떠한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하위 영역에서 외상 경험이 해당 도식 영역을 거쳐 특질 불안으로 이어지고, 다시 강박 신념으로 연결되는 순차적 매개 경로가 일관되게 확인

되었다. 특히 모든 하위 영역에서 완전 매개가 나타났다는 점은, 외상 경험이 강박 신념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초기 부적응 도식의 하위 영역들과 특질 불안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을 지지한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외상 경험이 단일한 인지 경로를 통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인지 구조 전반의 변형을 통해 불안을 증폭시키고, 그 결과 강박 신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각 하위 영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서적 고립과 수용 실패를 초래하는 외상 경험은 ‘단절 및 거절’ 영역을 활성화하여 거절에 대한 민감성과 과도한 인정 욕구를 심화시키고, 이는 지속적인 경계 상태의 불안 반응을 강화함으로써 도덕적 경직성이나 사고-행위 융합과 같은 강박 신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Young et al., 2003). 또한 자율성 침해와 자기효능감 저하를 동반한 외상 경험은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도식을 촉진하여 무능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고착화하며, 이러한 도식적 취약성은 지속적인 불안 반응과 수행 실패에 대한 과도한 경계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완벽주의 성향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같은 강박 신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Atalay et al., 2008). 더 나아가 감정 억압과 과도한 자기 통제를 요구받는 환경에서 형성된 외상 경험은 ‘과잉 경계 및 억제’ 영역을 심화시켜 억눌린 정서를 만성적인 긴장과 불안으로 전환시키며, 이는 도덕적 또는 가능성 차원의 사고-행위 융합과 같은 강박 신념으로 발전할 수 있다(OCCWG, 2005; Shafran, 2005). 한편, 통제 상실과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내포한 외상 경험은 ‘손상된 한계’ 영역을 강화하여 불안 수준을 높이고, 반복

확인이나 의례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강박 신념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Tolin et al., 2003). 마지막으로, 생존을 위해 타인의 요구에 과도하게 순응해야 했던 외상 경험은 ‘타인 중심성’ 영역을 강화하며, 이로 인해 형성된 기질화된 불안이 타인의 평가나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 결과에 과도하게 민감한 사고 경향을 촉발하여 궁극적으로 강박 신념을 심화시킬 수 있다(Frost & Steketee, 2002; Rafaeli et al., 2011).

한편, 각 경로의 상대적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근소한 범위( $\beta = .07 - .11$ )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beta = .11$ ), ‘손상된 한계’와 ‘단절 및 거절’(각  $\beta = .10$ ), ‘타인 중심성’( $\beta = .09$ ), ‘과잉 경계 및 억제’( $\beta = .07$ )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차이로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있었다. 이는 특정 하위 영역만을 선택적으로 표적화하기보다, 초기 부적응 도식 전반을 재구조화하고 불안 조절 전략을 병행하는 포괄적 개입이 강박 신념 완화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기 논의를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 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강박 신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적 경향성(특질 불안)과 인지적 구조(초기 부적응 도식)라는 두 심리적 축이 모두 유의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강박 신념의 형성 과정에서 정서와 인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외상 경험이 단순한 일시적 정서 반응을 넘어 개인의 핵심 신념 체계와 정서적 취약성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강박 신념의 병리적 발달을 설명하는 보다 정교한 임상적 이해를

을 제공한다.

둘째,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 간의 인과 경로에서 인지적 구조가 정서적 경향성보다 선행하는 순서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외상 이후 먼저 형성된 왜곡된 초기 부적응 도식이 특질 불안과 같은 정서적 취약성을 유발하고, 이러한 취약성이 다시 강박 신념을 강화·고착시켜 병리적 사고나 강박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초기 부적응 도식은 외상 이후 나타나는 정서 반응에 종속되는 결과 변인이기보다, 이후의 정서 경험과 사고 내용을 조직하는 인지적 틀로 기능하며, 이러한 점에서 “도식 → 감정 → 행동”이라는 도식 이론의 핵심 가정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생애 초기 외상에 기반한 강박 문제에 대한 임상 개입에서는 정서 조절 중심의 접근을 넘어, 외상으로 인해 고착된 도식 수준의 인지 구조를 재구성하는 개입을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치료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외상 경험에 의해 형성된 초기 부적응 도식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섯 가지 하위 영역 전반에서 특질 불안을 증폭시키며, 이를 통해 강박 신념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경험이 단일 도식 영역의 취약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식 체계 전반을 광범위하게 활성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은 개인의 핵심 인지 구조를 다층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전체 도식 체계의 취약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특질 불안이 강화되어 강박 신념 형성의 주요 경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30대 일반 성인을 대

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은 회상에 기반한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 왜곡이나 인지적 편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회상에 의존한 측정 방식은 외상 경험자의 정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인지적 특성에 따라 외상 자극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대 및 생애주기별 집단을 포함하고, 임상 진단 자료, 제3자 보고, 혹은 생리적 지표 등 객관적 자료를 병행함으로써 외상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강박장애 환자군과 같은 임상 집단을 포함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외상 경험을 측정함에 있어 TAQ 총점을 활용하였으나, 해당 척도는 비교적 경미한 경험부터 심각한 외상 사건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외상의 강도나 심각도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단발적인 사건이나 일상적 스트레스원이 외상 점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심리적 영향력의 정도와 측정값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외상의 강도, 빈도, 유형에 따른 그룹화를 통해 하위 분류를 정교화하거나, 항목별 심각도에 기반한 가중치 부여 방식을 통해 외상 변인의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모든 변인을 자기보고식(self-report)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제한이 있다.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은 주관적 회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억의 편향이나 인지적 왜곡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초기 부적응 도식 및 강박 신념 역시 방어적 반응이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 bias)에 따라 과소 또는 과대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임상 면담, 타당도 보정 척도, 다면적 평가 방법 등을 병행하여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외상 경험과 강박 신념 간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심리적 기제에 초점을 두었으며, 생물학적 · 사회적 · 환경적 요인들을 충분히 통제하거나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이 있다. 강박 신념은 세로토닌 기능 이상과 같은 신경생리학적 요인, 가족 및 양육 환경, 문화적 규범 및 사회적 기대 등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유전적 기질, 뇌 기능 지표, 가족 및 또래 관계,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하는 통합적 모델을 통해 보다 종합적인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고나래 (2008). 아동, 청소년기 복합외상 경험이 정서조절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RISS.  
<http://www.riss.kr/link?id=T11209952&outLink=K>

김정택 (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Spielberger의 STAI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RISS.

<https://sam.riss.kr/findThesisAnalysis.do?controlNo=000007816838&docType=T>

김혜림, 정진복, 김제중 (2016). 아동 청소년기 외상 경험자의 외상후 스트레스경향, 강박사고 경향 간의 관계 - 초기 부적응 도식을 중심으로. *재활심리연구*, 23(1), 257-270.  
<https://dspace.kci.go.kr/handle/kci/594116>

민병배, 원호택 (2000). 강박 증상 및 걱정과 관련된 성격 특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4), 659-679.  
<https://accesson.kr/kjcp/v.19/4/659/26695>

보건복지부 (2022). 2022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378052&seq=1](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19&list_no=378052&seq=1)

우충완, 신민섭, 권석만 (2010). 강박신념의 강박증상 특이성 검증: 비임상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1), 35-52.  
<https://doi.org/10.15842/kjcp.2010.29.1.003>

Abramowitz, J. S., Taylor, S., & McKay, D. (2009).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The Lancet*, 374(9688), 491-499.  
[https://doi.org/10.1016/S0140-6736\(09\)60240-3](https://doi.org/10.1016/S0140-6736(09)60240-3)

Atalay, H., Atalay, F., Karahan, D., & Çalıřkan, M. (2009). Early maladaptive schemas activated in patients with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A cross-sec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Clinical Practice*, 13(4), 268-279.  
<https://doi.org/10.1080/13651500802095004>

Azadfar, Z., Rossi, G., Dierckx, E., Duenas, J., Diaz-Batanero, C., Schoevaerts, K., Peuskens, H., Santens, E., Pauwels, E., Haekens, A., & Baetens, K. (2025). Early maladaptive schemas

- as mediators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and adult psychopathology in psychiatric inpatients. *Child Abuse & Neglect*, 160, Article e107238.  
<https://doi.org/10.1016/j.chiabu.2024.107238>
- Bach, B., Lockwood, G., & Young, J. E. (2018). A new look at the schema therapy model: Organization and role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Cognitive Behaviour Therapy*, 47(4), 328-349.  
<https://doi.org/10.1080/16506073.2017.1410566>
- Barlow, D. H. (2002). *Anxiety and its disorders: The nature and treatment of anxiety and panic* (2nd ed.). Guilford Press.  
[https://books.google.com/books/about/Anxiety\\_and\\_Its\\_Disorders.html?id=Lx9hf-3ZJCQC](https://books.google.com/books/about/Anxiety_and_Its_Disorders.html?id=Lx9hf-3ZJCQC)
- Briggs, E. S., & Price, I. R.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and beliefs: The role of anxiety, depression, and experiential avoidanc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3(8), 1037-1046.  
<https://doi.org/10.1016/j.janxdis.2009.07.004>
- Calvete, E. (2014). Emotional abuse as a predictor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in adolescents: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depressive and social anxiety symptoms. *Child Abuse & Neglect*, 38(4), 735-746.  
<https://doi.org/10.1016/j.chiabu.2013.10.014>
- Calvete, E., Orue, I., & Hankin, B. L. (2013). Transactions between cognitive vulnerabilities,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 longitudinal study of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1(3), 399-410.  
<https://doi.org/10.1007/s10802-012-9691-y>
- Chorpita, B. F., & Barlow, D. H. (1998). The development of anxiety: The role of control in the early environment. *Psychological Bulletin*, 124(1), 3-21.  
<https://doi.org/10.1037/0033-2909.124.1.3>
- Cicchetti, D., & Toth, S. L. (2005). Child maltreatment.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 409-438.  
<https://doi.org/10.1146/annurev.clinpsy.1.102803.144029>
- Clark, D. A. (2004).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OCD*. Guilford Press.  
[https://books.google.com/books/about/Cognitive\\_Behavioral\\_Therapy\\_for\\_OCD.html?id=rFFinoEm6jsC](https://books.google.com/books/about/Cognitive_Behavioral_Therapy_for_OCD.html?id=rFFinoEm6jsC)
- Clark, D. A., & Purdon, C. (1993). New perspectives for a cognitive theory of obsessions. *Australian Psychologist*, 28(3), 161-167.  
<https://doi.org/10.1080/00050069308258896>
- Cromer, K. R., Schmidt, N. B., & Murphy, D. L. (2007a). An investigation of traumatic life events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7), 1683-1691. <https://doi.org/10.1016/j.brat.2006.08.018>
- Cromer, K. R., Schmidt, N. B., & Murphy, D. L. (2007b). Do traumatic events influence the clinical expression of compulsive hoarding?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11), 2581-2592. <https://doi.org/10.1016/j.brat.2007.06.005>
- Doron, G., Kyrios, M., & Moulding, R. (2007). Sensitive domains of self-concept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OCD): Further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model of OCD.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3), 433-444.

- <https://doi.org/10.1016/j.janxdis.2006.05.008>
- Dostal, J. A., & Pilkington, P. D. (2023).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36*, 42-51.
- <https://doi.org/10.1016/j.jad.2023.05.053>
- Eysenck, M. W. (1992). *Anxiety: The cognitive perspective*. Psychology Press.
- <https://doi.org/10.4324/9780203775677>
- Foa, E. B. (2010).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Dialogues in Clinical Neuroscience, 12*(2), 199-207.
-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3181959/>
- Foa, E. B., Sacks, M. B., Tolin, D. F., Prezworski, A., & Amir, N. (2002). Inflated perception of responsibility for harm in OCD patients with and without checking compulsion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6*(4), 443-453.
- [https://doi.org/10.1016/S0887-6185\(02\)00128-7](https://doi.org/10.1016/S0887-6185(02)00128-7)
- Frost, R. O., & Steketee, G. (Eds.). (2002). *Cognitive approaches to obsessions and compulsions: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Pergamon Press.
- [https://books.google.com/books/about/Cognitive\\_Approaches\\_to\\_Obsessions\\_and\\_C.html?id=9A0-HQtBtD8C](https://books.google.com/books/about/Cognitive_Approaches_to_Obsessions_and_C.html?id=9A0-HQtBtD8C)
- Gershuny, B. S., & Thayer, J. F. (1999). Relations among psychological trauma, dissociative phenomena, and trauma-related distress: A review and integra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9*(5), 631-657.
- [https://doi.org/10.1016/S0272-7358\(98\)00103-2](https://doi.org/10.1016/S0272-7358(98)00103-2)
- Gilbert, R., Widom, C. S., Browne, K., Fergusson, D., Webb, E., & Janson, S. (2009). Burden and consequences of child maltreatment in high-income countries. *The Lancet, 373*(9657), 68-81.
- [https://doi.org/10.1016/S0140-6736\(08\)61706-7](https://doi.org/10.1016/S0140-6736(08)61706-7)
- Holaway, R. M., Heimberg, R. G., & Coles, M. E. (2006). A comparison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in analogue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2), 158-174.
- <https://doi.org/10.1016/j.janxdis.2005.01.002>
- Kendall-Tackett, K. A. (2002). The health effects of childhood abuse: Four pathways by which abuse can influence health. *Child Abuse & Neglect, 26*(6-7), 715-729.
- [https://doi.org/10.1016/S0145-2134\(02\)00343-5](https://doi.org/10.1016/S0145-2134(02)00343-5)
- Kline, R. B. (2013). *Beyond significance testing: Statistics reform in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ttps://doi.org/10.1037/14136-000>
- Mathews, C. A., Kaur, N., & Stein, M. B. (2007). Childhood trauma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Depression and Anxiety, 25*(9), 742-751. <https://doi.org/10.1002/da.20316>
- McLaughlin, K. A., Sheridan, M. A., & Lambert, H. K. (2014). Childhood adversity and neural development: Deprivation and threat as distinct dimensions of early experience.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47*, 578-591.
- <https://doi.org/10.1016/j.neubiorev.2014.10.012>
- Moulding, R., & Kyrios, M. (2006). Anxiety disorders and control-related beliefs: The exemplar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 (OCD).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5), 573-583.  
<https://doi.org/10.1016/j.cpr.2006.01.009>
- Muris, P. (2006). Maladaptive schemas in non-clinical adolescents: Relations to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urs,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psychopathological symptom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3(6), 405-413.  
<https://doi.org/10.1002/cpp.506>
- Obsessive Compulsive Cognitions Working Group (OCCWG). (1997). Cognitive assessment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7), 667-681.  
[https://doi.org/10.1016/S0005-7967\(97\)00017-X](https://doi.org/10.1016/S0005-7967(97)00017-X)
- Obsessive Compulsive Cognitions Working Group (OCCWG). (2001).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Obsessive Beliefs Questionnaire and the Interpretation of Intrusions Inventor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8), 987-1006.  
[https://doi.org/10.1016/S0005-7967\(00\)00085-1](https://doi.org/10.1016/S0005-7967(00)00085-1)
- Obsessive Compulsive Cognitions Working Group (OCCWG). (2003). Psychometric validation of the Obsessive Beliefs Questionnaire and the Interpretation of Intrusions Inventory: Part I.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8), 863-878.  
[https://doi.org/10.1016/S0005-7967\(02\)00099-2](https://doi.org/10.1016/S0005-7967(02)00099-2)
- Obsessive Compulsive Cognitions Working Group (OCCWG). (2005). Psychometric validation of the Obsessive Beliefs Questionnaire and the Interpretation of Intrusions Inventory-Part 2: Factor analyses and testing of a brief ver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11), 1527-1542.  
<https://doi.org/10.1016/j.biopsy.2004.07.010>
- Rachman, S. (1997). A cognitive theory of obses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9), 793-802.  
[https://doi.org/10.1016/S0005-7967\(97\)00040-5](https://doi.org/10.1016/S0005-7967(97)00040-5)
- Rafaeli, E., Bernstein, D. P., & Young, J. E. (2011). *Schema therapy: Distinctive features*. Routledge.  
<https://www.routledge.com/Schema-Therapy-Distinctive-Features/Rafaeli-Bernstein-Young/p/book/9780415462990>
- Riso, L. P., Maddux, R. E., & Kiefer, T. (2007). A critical review of the Young Schema Questionnaire and its use in schema therapy. In R. L. Leahy (Ed.), *Contemporary cognitive 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75-101). Guilford Press.  
<https://books.google.com/books?id=rnLBWKGMPcC>
- Salkovskis, P. M. (1985). Obsessional-compulsive problems: A cognitive-behavioural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3(5), 571-583.  
[https://doi.org/10.1016/0005-7967\(85\)90105-6](https://doi.org/10.1016/0005-7967(85)90105-6)
- Scheeringa, M. S., Zeanah, C. H., Myers, L., & Putnam, F. W. (2004). Heart period and variability findings in preschool children with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Biological Psychiatry*, 55(7), 685-691.  
<https://doi.org/10.1016/j.biopsy.2004.01.006>
- Schmidt, N. B., Joiner, T. E., Young, J. E., & Telch, M. J. (1995). The schema questionnaire: Investigation of psychometric properties and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a measure of maladaptive schema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3), 295-321.

- <https://doi.org/10.1007/BF02230402>
- Shafraan, R. (2005). Cognitive-behavioral models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In J. S. Abramowitz & A. C. Houts (Eds.), *Concepts and controversies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pp. 229-260). Springer.
- [https://doi.org/10.1007/0-387-23370-9\\_13](https://doi.org/10.1007/0-387-23370-9_13)
- Spielberger, C. D.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https://www.mindgarden.com/145-state-trait-anxiety-inventory-for-adults>
- Spielberger, C. D., & Smith, L. H. (1966). Anxiety (drive), stress, and serial-position effects in serial-verbal learn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2(4), 589-595.
- <https://doi.org/10.1037/h0023769>
- Steketee, G., Frost, R. O., & Cohen, I. (1998). Beliefs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6), 525-537.
- [https://doi.org/10.1016/S0887-6185\(98\)00030-9](https://doi.org/10.1016/S0887-6185(98)00030-9)
- Stopa, L., & Waters, A. (2005). The effect of mood on responses to the 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8(1), 45-57.
- <https://doi.org/10.1348/147608304X21383>
- Teicher, M. H., & Samson, J. A. (2016). Annual research review: Enduring neurobiological effects of childhoo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7(3), 241-266. <https://doi.org/10.1111/jcpp.12507>
- Thiel, N., Jacob, G. A., Tuschen-Caffier, B., Herbst, N., Külz, A. K., Hertenstein, E., Nissen, C., & Voderholzer, U. (2016). Schema therapy augmented exposure and response prevention in patien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Feasibility and efficacy of a pilot study.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52, 59-67.
- <https://doi.org/10.1016/j.jbtep.2016.03.006>
- Tolin, D. F., Abramowitz, J. S., Brigidi, B. D., & Foa, E. B. (2003). Intolerance of uncertainty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7(2), 233-242.
- [https://doi.org/10.1016/S0887-6185\(02\)00182-2](https://doi.org/10.1016/S0887-6185(02)00182-2)
- van der Kolk, B. A. (1997). Traumatic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 [Unpublished measure].
- van Harmelen, A. L., van Tol, M. J., van der Wee, N. J., Veltman, D. J., Aleman, A., Spinhoven, P., van Buchem, M. A., Penninx, B. W., Zitman, F. G., & Elzinga, B. M. (2010). Reduced medial prefrontal cortex volume in adults reporting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Biological Psychiatry*, 68(9), 832-838.
- <https://doi.org/10.1016/j.biopsych.2010.06.011>
- Lee, S. J., Choi, Y. H., Rim, H. D., Won, S. H., & Lee, D. W. (2015).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3 in medical students. *Psychiatry Investigation*, 12(3), 295-304.
- <https://doi.org/10.4306/pi.2015.12.3.295>
- Young, J. E. (2005). *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Version 3 (YSQ-S3, YSQ)* [Database record]. APA PsycTests.
- <https://doi.org/10.1037/t67023-000>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Guilford Press.  
[https://books.google.com/books/about/Schema\\_Therapy.html?id=pS5uAAAAQBAJ](https://books.google.com/books/about/Schema_Therapy.html?id=pS5uAAAAQBAJ)

원고접수일 : 2025. 03. 07.  
수정원고접수일 : 2025. 08. 01.  
게재확정일 : 2025. 08. 14.

##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nd Adolescent Trauma Experiences and Obsessive Belief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Trait Anxiety

Yo-han Hwang<sup>1)</sup>

Jung-hae Youn<sup>2)†</sup>

<sup>1)</sup>Graduate School of Clinical Counseling Psychology, CHA University, M.A.

<sup>2)</sup>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CHA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trait anxiety and early maladaptive schemas (EMSs) and their five subdomains (disconnection/rejection, impaired autonomy/performance, other-directedness, over-vigilance/inhibition, and impaired limi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adolescent trauma and obsessive beliefs. Nationwide, data were collected from 378 adults aged 19-39 via an online survey and analyzed using SPSS 28.0 and PROCESS Macro 4.2 (Models 4 and 6).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trait anxiety and EMSs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and in sequential mediation models with reversed variable orders, EMSs preceding trait anxiety showed a relatively stronger effect. When the five EMS subdomains were tested as mediators, all showed full mediation in the sequential pathway. These findings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clinical intervention by clarifying the structured interplay among trauma, EMSs, and anxiety vulnerability in the pathological formation of obsessive beliefs.

*Keywords* : childhood and adolescent trauma experiences, obsessive beliefs, trait anxiety, early maladaptive schemas

---

† Corresponding Author: Jung Hae Youn / Department of Psychology, CHA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11160) 120 Haeryong-ro, Poche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E-mail: junget@cha.ac.kr